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주 제:	“수난주일.”	“주님성지수난 주일” (다해)	2007년 4월 1일
복음 묵상:	루카 22,14-23,56	이사 50,4-7	필리 2,6-11

본당에서 수난 복음을 봉독할 때 신자들이 목청껏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외침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구세주가 오신다고 열광하던 바로 그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나 봅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배신과 고발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외침은 당장 오늘날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남들은 잘도 살더니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나는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는 힘없는 예수님은 하느님도 아니니 십자가형에나 처하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 신세 한탄이나 하느님을 원망하고만 있다면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군중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식 즉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이때 우리의 참된 신앙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부산) 이장환 신부님 강론 중에서

성가대 소식

1. 드디어 성주간을 맞았습니다. 일년중 가장 바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성 목요일 주님만찬미사, 금요일의 수난예식으로 초상을 치르며 금육과 단식으로 지내며, 이어서 부활성야를 맞습니다. 일년중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마음을 다해 부활을 맞을 각오를 해야하겠습니다.

2. 가족 동점

- 김 효식 필립보네리 형제님 자제 **Sephen** 군의 Symphony Orchestra 의 violin 독주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오셨습니다
- 서병문 바오로 형제님 한국에서 새가정을 이루셨으나 혼자 먼저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가대 가족분들께 감사 전해 오셨습니다.
- 전마리아 막달레나 여행 무사히 마치고 건강히 잘 돌아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의 친정어머님께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복음 [루카 22,14-23,56 or 23,1-49]



새로생긴 본당 웹 주소: <http://67.15.255.6/~sjkorean/?q=node/1142>

성가대 웹이 마련되었으니, 모든 단원들은 교인으로 등록하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어 좋은 성가대 사이트로 만들어갑시다.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도 올리도록 되어있으니 많이 올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루카)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성 주 간 (聖 週 間)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 한다.

이는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사업을 이룩하는 때요, 교회전례의 정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성주간은 예수수난 (성지)주일부터 시작된다. 성지주일에 사제는 홍색 제의를 입고 성지(빨마가지)를 축성하여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죽음에 처할 분이지만 그 죽음을 처부술 왕이며, 파괴될 성전이지만 새로이 건설될 성도 예루살렘(교회)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다함께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다.

말씀의 전례 때에는 수난사(受難史)가 봉독된다.

성주간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장례)을 예고하고,

성주간 화요일에는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고,

성주간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예고하신다.

이 3일 동안에 특별한 전례는 없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다.

※ 생활자세 : 사순절이 시작되면 많은 신자들이 보속과 회생을 결심하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곤 한다. 그러나 담배와 술 끊기, 금식과 금욕 등 소극적인 극기 생활에만 중점을 두기 쉽다.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의 수난에 더욱 적극 동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자선과 회생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 . 편하기만을 바라는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고 금식과 금욕을 요구하는 교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 . 산만한 생활에 정신을 빼앗겼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속죄의 생활로써 혁신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 . 속죄 행위로써 절약하여 모은 '사순절 특별헌금'에 자신의 선한 마음을 합하여 가난한 이웃에게 희사해야 한다.

- .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원칙하에 자기에게 맞는 기도와 선행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주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새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고해성사(판공성사)를 타당히 받아야 한다. 죄 사함 없이 부활의 기쁨은 없다.

성 목요일

이날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유언을 남기셨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최후의 만찬)를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심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다.

이 성체 성사와 함께 사제직을 설정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사업을 세세에 전하여 모든 이가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게 하시고, 올리브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셨으며, 마침내 사랑하시던 제자 유다의 배반으로 이교도들의 손에 붙잡히셨던 날이다. 성 목요일 전례 이 날은 원래 주교를 중심으로 미사 한 대만 봉헌하고 이 미사에서 축성한 성체와 성유를 각 본당으로 모셔가도록 분배했지만 지금은 두 가지 즉 성유 축성 미사와 주의 만찬 미사를 거행한다.

▶**성유 축성 미사** : 예수님이 당신 사제직을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주셨음을 기념하는 미사이다. 이날 아침에 주교좌성당에서 주교와 사제단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성유를 축성 한다. 이로써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사제들은 약속 갱신식을 거행함으로써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며, 축성된 성유를 나누어 감으로써 성사집행에 있어서 교구 전체의 연대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 성유는 사제들이 성세, 견진, 신품, 병자성사를 집행할 때 사용한다.

▶**주의 만찬 미사** : 예수님이 수난하시기 전에 전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저녁식사로써 당신을 만민에게 성체성사로서 주심을 기념하는 미사이다. 새 계약이 맺어지고 "서로 사랑하라" (요한 13 13, 34)는 새 계명이 선포되는 미사이다. 대영광송을 장엄하게 노래하면서 풍금과 종을 울린 후 부활성야 미사에서 대영광송을 할 때까지 풍금과 종을 울리지 않고 영광송도 하지 않는다.

세족례(洗足禮)가 강론 후에 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본받아 선발된 신자들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의 발을 씻으면서 남기신 사랑의 계명을 상기시켜 서로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는 예식이다.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있다.

성세, 신품,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주님의 명에 응답하는 행위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영성체 후에 다음 날(성 금요일)을 위한 성체를 본 감실에 모시지 않고 비워둔 채 현양제대에 모시고 본 제대를 벗긴다. 이것은 예수께서 3 일 동안 땅에 묻혀계셨음을 드러낸다. 주님의 수난과 죽으심을 슬퍼하고 주님을 죽게 한 우리 죄를 미워하면서 잃어

버린 주님을 다시 찾아 만날 것을 다짐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영성체 후 기도를 마친 다음 사제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현양제대로 성체를 모셔간다.

이때 신자들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전례에 참여할 것이다. 사제가 성체를 현양제대에 모시고 분향한 후부터 성 금요일 수난 예절까지 신자들은 성체조배를한다.

이것은 올리브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 까지 기도과 번민으로 고통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현양제대로 성체가 옮겨질 때부터 성 금요일 십자가 경배예절에서 십자가를 벗길 때까지 십자가는 가리워둔다.

성 금요일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죽음의 산 골고타로 오르셨고,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서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 땅에 묻히신 날이다.

성 금요일 전례 교회가 미사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날이다. 미사뿐만 아니라 다른 성사도 집행하지 않는데, 이것은 성사가 그리스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함이다.

▶주의 수난 예식 : 예수님이 운명하신 오후 3 시경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목상의 이유로 더 늦은 시간에도 거행한다. 사제는 홍색 제의를 입으며 제단에는 십자가도 촛대도 제단보도 없다.

▶말씀의 전례 : 말씀의 전례가 엄숙하게 전개되는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며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한다. 사제는 입장 후 즉시 제단 앞에 엎드려 주의 수난을 묵상하고 말씀의 전례를 시작하는 특별한 예식을 거행한다.

▶장엄기도 : 대신자들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의 기도이다.

▶십자가 경배예식 : 비탄과 경건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이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의 나무이며 계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나? 대답해다오."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한다.

영성체를 위하여 본 제대로 성체가 옮겨지고 남은 성체는 별실에 모셔둔다. 성 토요일 이 날은 교회가 주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이다.

제대도 벗겨진채 그대로 있고 미사도 드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밤이 깊어 오면서 우리는 부활의 희망에 부른다.

성 토요일

전례 사순시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 토요일 밤의 전례는 모든 전례의 극치를 이룬다. 재생의 사상이 주종을 이루는 이날 전례는 성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한다. 예식을 밤에 거행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밤새워 기다린데 서 유래한다. 부활성야(復活聖夜) 이 밤은 하느님이 인류를 위해 섭리하신 가장 밝고 아름다운 밤이다.

주께서 무덤을 여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룩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 삶으로 건너가심(빠스카)을 기억하는 밤이다.

즉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 죄의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죽음에서 영생(부활)으로 건너감을 체험 하는 밤이다.

▶빛의 예식 : 불과 부활초를 축성하고 불의 행렬을 한다. 부활로써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세상에 나타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린다는 뜻에서 이 예식을 행한다.

▶말씀의 전례 : 일곱 개의 독서와 총계송을 노래하며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고 구원의 은총을 기원한 다음 대영광송을 장엄하게 노래로 시작한다. 풍금과 종을 다시 치고 이때부터 영광송을 하게 된다.

▶성세 예식 : 성세수 축성과 세례식 후 모두가 촛불을 밝혀 들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영세자와 함께 성세서약 갱신을 하여 이미 받은 성세성사를 새로이 한다.

▶성찬 예식 : 죄악과 죽음이 물러가고 펼쳐지는 새 세상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써 시작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성체로써 우리와 결합되므로 우리는 죄악과 죽음을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 밝혀질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날 제의는 백색이다.